

# 핀란드의 이중 언어 교육

목 차

I .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 내용	1
II . 이론적 배경	3
1. 이중언어인의 의미	3
2. 이중언어교육의 이론적 배경	4
III . 핀란드의 공용어	4
1. 핀란드의 공용어 제정의 역사적 배경	4
2. 핀란드의 공용어의 지위	5
IV . 핀란드의 이중언어 교육정책	6
1. 핀란드의 교육과정	6
1. 핀란드의 교육제도	8
3. 핀란드의 언어교육	14
4. 핀란드의 소수민족의 문제	18
5. 핀란드의 복지와 교육	19
V . 결론	21

## I .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언어는 의사소통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아동은 자신의 의사전달을 위하여 언어를 배우며 아동과 가장 가까이 있는 어머니를 포함한 부모,형제,친구,교사 등의 언어행동을 모방함으로써 언어습득을 한다.이 때 부모는 아동의 언어발달의 일차적인 교육 환경으로 작용하며,아동의 성장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언어학습 경험 요인이다. 특히 아동의 언어 습득 및 발달에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사용언어 및 의사소통 방식은 아동의 언어발달에 큰 영향을 준다(박지윤 외,2007). 따라서 개인의 언어습득 및 발달은 가정환경, 교육환경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날로 늘어가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언어학습과 정체성 그리고 대인관계의 형성 과정이 다른 아동들에 비하여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 결과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의 미진한 언어발달, 학업 성취의 부진, 다른 아동으로부터의 따돌림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다문화 가정의 부모, 특히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는 공식적 학부모 활동의 한계, 부모로서의 자신감 부족과 자녀와의 관계 형성의 어려움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2009)에 의하면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자녀교육과정에서 제기되는 구체적 과제를 적절히 처리해가면서 부모로서 자신의 역량을 증진하고 그 성과를 토대로 자신감을 형성하고 자녀와의 관계를 발달시키고 또 다른 과제에 대응해나가는 측면은 매우 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그들의 자녀를 완전히 한국아이로 키울 것인지, 자신의 모국문화를 가르칠 것인지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 부모들을 위한 공식적인 교육이나 언어정책과는 별도로 자녀에게 어머니의 출신국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을 키워줄 것인지 아니면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형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으며, 정체성 교육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과 학교에서 이중.삼중의 언어를 접하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그들대로 언어와 생활방식 등에서 혼란스러움을 느낀다. 이는 부모의 가치관 차이에서 오는 부적응 문제에 봉착하기도 한다. 부모가 각각 다른 국가에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보고 배우는 내용이 각각 다르다보니 이들은 가치관의 혼돈을 겪게 되고, 그에 따라 부적응 현상도 보이고 있다(김성화,2008).

한국어가 서툰 어머니를 둔 다문화 가정 아동의 경우 어머니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며 이는 자녀와 부모간의 심리적 유대를 약화 시키고 관계의 단절감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서종남,2010).이러한 경우 여성결혼이민자인 어머니가 자신이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언어는 아동을 양육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한국의 다문화 가정의 경우 모국어로 상호 작용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모국의 문화를 전수할 환경을 조성하기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이송은,2007). 그러나 자녀에게 모의 언어와 문화를 교육하는 것은 가정에서 자녀와 부모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도와 긍정적인 가족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자녀에게는 국제사회에서 필요한 언어적인 능력을 계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정체성과 자신감을 고취

하는 태도를 형성시켜줄 수 있다(서종남,2010). 다문화 가정의 부모들 역시 자녀에 대한 이중언어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송영복(2010)은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중언어 교육 사례연구를 통해 부모들이 이중언어 수업에 대한 욕구가 크고, 아동들이 프로그램 참여 후 이중언어 사용 능력과 학교 적응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다문화 가정 아동의 이중언어 구사가 부모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가능하게 하고 가족과의 유대감을 강하게 하며, 이는 학교 적응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이진선,2010).

이렇듯 다문화가정의 가족들 간의 긍정적인 관계형성, 정체성 형성, 새로운 문화에 대한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중언어 교육은 다문화가정의 부모, 자녀들에게는 필수적인 교육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을 위한 이중언어 교육정책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편이다.

핀란드는 PISA평가에서 연속으로 좋은 성적을 거둬오므로 우리들에게는 교육 강국으로 잘 알려져 있다. 북유럽에 위치한 국가이지만 핀란드어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는 다르게 우랄알타이어계이다. 핀란드 학생들도 영어를 공부하면서 우리나라의 학생들처럼 어순이 다른 외국어로서 학습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핀란드 학생들은 학원이나 과외가 없이 학교 공부만으로 영어 및 외국어 회화가 가능하다고 한다.

또한 핀란드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농업 중심 국가에서 짧은 기간 동안 산업화를 이룬 국가이다. 오늘날 핀란드는 정보통신 기술과 전자 산업의 강국이지만, 1945년 만해도 인구의 60%가 농업과 임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었는데, 이 이면에는 교육에 높은 사회적 가치를 부여하고 국가적으로 투자를 아끼지 않는 교육열이 큰 몫을 담당하였다. 노작(勞作) 산업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종합학교를 마친 다음 인문계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보다 직업 교육을 선호하는 학생 비율이 높다는 점은 우리나라와 다르지만, 교육만이 사회적 신분 상승 또는 유지의 길이라고 인식하는 분위기는 매우 흡사하다고 볼 수 있다.

핀란드의 주민은 핀족이 93.6%, 스웨덴족 6.2%, 기타 랍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구의 92%가 핀란드어를 사용하는데 핀란드어는 우랄어족의 피노우그리아어파에 속하며 서쪽의 스웨덴어나 동쪽의 러시아어와는 계통을 달리한다. 주민의 6.6% 정도는 스웨덴어를 모국어로 한다. 이 때문에 핀란드어와 스웨덴어가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핀란드인의 정신구조는 언어와 민속이 우랄어계이면서 역사적·사회적으로는 게르만계의 북유럽 문화 국가에 편입되는 복합성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핀란드가 다른 북유럽 국가와 달리 전체주의 성격을 갖게 된 또 한 가지의 계기는 1917년 러시아로부터 어렵사리 독립을 쟁취한 다음 이념 분쟁으로 말미암아 내전을 겪은 것이다. 식민지 생활과 내전 등 격동의 20세기를 거쳤다는 점 또한 핀란드와 우리나라의 유사점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이중언어 교육정책을 핀란드의 소수민족에 대한 이중언어 교육 정책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다문화 가정의 언어교육에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다면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 2. 연구 내용

핀란드의 핵심 자랑거리는 역시 교육이다. ‘모든 이를 위한 교육’이라는 공공교육의 이념이 이미 150년 전에 시작되어 꾸준히 교육의 질과 수준을 향상시켜 왔다. 핀란드의 지방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 43만 1천 명 가운데 보건, 복지 영역에 근무하는 사람이 56.1%가 되고 교육 공무원이 27.1%가 된다.(2009 기준) 교육까지 복지 영역으로 보면 거의 83.2%가 된다. 이와 같이 핀란드 교육의 체제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음을 재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우선 핀란드 교육정책을 살펴보고 이들의 특징을 정리해 봄으로써 우리나라 교육현실에 시사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규명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이중언어인의 의미

이중언어인(Bilingual person)은 두 가지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넓게 볼 때 두 가지 이상의 언어를 구사하는 다중언어인(Multilingual person)이란 의미를 포함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중언어는 두 가지 이상의 언어를 구사하는 현상 또는 이중언어 교육을 주창하는 이론으로 다중언어란 의미를 포함한다. 최근에 들어와 이런 점을 고려하여 이 모두를 포함할 수 있는 복수언어(Plurilingualism)란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중언어 능력에 대해서도 제2언어를 거의 모국어처럼 구사할 수 있을 때에 이중언어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는 최대론과 제2언어로 어느 정도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구사 능력만 있으면 이중언어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는 최소론의 견해로 나뉜다. 이렇게 이중언어의 개념은 현상에 따라 다르게 정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 차원, 사회 차원, 상호작용 차원으로 나누어 설명하기도 한다.

### 2. 이중언어의 이론적 배경

이중언어교육은 다민족으로 구성된 국가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대표적인 다민족 성립 국가 미국의 이중언어교육의 역사를 살펴보면 19세기말에서 20세기 중반까지의 비영어권 소수 민족에 대한 철저한 탄압에서, 1960년대 이후 다양한 민족구성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에 이르기까지 큰 변화를 겪어 왔다. 1960년대에 들어와서 많은 경험적 연구들이 진행됨에 따라 이주민의 언어, 즉 부모

출신국의 언어와 주류사회 언어인 영어를 함께 구사하는 것이 이주민 자녀들의 높은 인지능력과 학업성취와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들이 나왔다(Zhou,1997;곽금주,2008;권순희,2009재인용). 1980년대 초기까지 미국의 대다수의 지역에서 이중언어 교육 관련 프로젝트가 실시되었으며, 이러한 미국연방 및 주정부의 적극적인 이중언어 교육정책의 결과로 100여 개의 소수 민족 언어들이 학교 수업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Grosjean,1982). 이러한 이중언어 교육정책은 1991년에 양방향의 교육 프로그램(two-way bilingual education program)의 형태로까지 발전하였다. 미국의 이중언어 교육정책은 초기에는 소극적인 성격의 형태로 시작하였지만 점차 적극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하게 되었다(홍종선,2000).

이중언어 구사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Bialystock(1987)은 두 나라 이상의 언어를 구사하는 아동들이 언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인지적 조절능력이 모어만 구사하는 아동들보다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며,Galabos&Hakuda(1988)은 이중언어 구사자들이 단일 언어구사자보다 높은 수준의 언어를 잘 습득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Rynolds(1991)은 이중언어 구사자는 두 가지 언어 체계를 통해 대상을 인식하므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에 더 유능하다고 밝혔다. 즉 이중언어 구사자가 두 가지의 어휘체계와 두 가지의 언어 암기체계가 동시에 작동하기에 새로운 정보를 획득하는 데도 두 배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박영순,2002).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중언어 교육은 다민족 성립 국가를 중심으로 과거 소극적형태에서 적극적 형태로 점차 변화하고 있으면, 그 효과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논의되고 있었다.

### III. 핀란드의 공용어

#### 1. 핀란드의 공용어 제정의 역사적 배경

국토의 70%가 삼림과 호수로 된 핀란드(Republic of Finland, Suomen Tasavalta)는 유럽에서 7번째로 큰 나라이다. 면적은 한반도의 1.5배 정도이며 인구는 약 530만명이다. 서북쪽으로는 스웨덴, 북쪽으로는 노르웨이, 동쪽으로는 러시아연방 카렐리야자치공화국과 이웃하고 있다. 위치상 스웨덴과 소련이라는 2대 강국에 끼여 역사적으로 고난의 길을 걸어왔다. 언어는 제1공용어로서 핀란드어(92.3%), 스웨덴어(5.6%), 새미어(0.39%, 170만명)를 사용하고 있으며 모국어로 사회적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교육비 공공지출 총액은 14%, 국민총생산(GNP)의 7.2%를 차지함으로써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이런 공용어의 제정과 사용은 그 역사적 배경에서 기인한다. 12세기 중반 기독교

전파로부터 시작된 핀란드와 스웨덴과의 관계는 13세기 중반부터 핀란드의 남서 지역과 해안을 중심으로 하여 스웨덴의 지배를 받게 된다. 이런 상황은 스웨덴과 러시아의 전쟁에서 러시아가 승리하여 1809년 핀란드가 러시아 황제의 통치하에 핀란드 자치대공국으로 되기 전까지 계속되었으며 러시아의 지배는 1917년 핀란드가 독립을 선언함으로써 끝나게 된다.

19세기 핀란드에 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점차 핀란드의 공용어화에 대한 요구가 나오기 시작했다. 전에는 핀란드 자치대공국에서 재판과 행정의 주언어는 스웨덴어였으나, 1863년부터 당국과 상대할 때에 스웨덴어와 함께 핀란드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1883년부터 공무원들은 의무적으로 핀란드어를 사용하고 서류를 핀란드어로 발급하게 되었고, 1892년에 이르러 마침내 핀란드어는 스웨덴어와 동등한 지위를 지닌 공식 언어가 되었다. 그리고 평등과 보통참정권과 단원제 국호를 규정한 1906년의 국회 조례에 따라 핀란드어가 사실상의 제1공식 언어가 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이 진행 중이던 1917년 핀란드가 독립하게 됨으로써 핀란드 내의 핀란드어 사용 공동체와 스웨덴어 사용 공동체간에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생겨났다. 핀란드가 독립에 대한 요구를 하는 동안 올란드(Åland)섬들의 스웨덴어 사용자들은 거의 만장일치로 스웨덴에 소속되길 원했으나, 국제연맹위원회가 1921년 올란드에 대한 핀란드의 통치권을 확인함으로써 논쟁은 종료되었다. 다만 동시에 국제법과 국가 법제정을 통해 올란드 섬들에 대한 상당 수준의 자치권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결국 스웨덴어는 핀란드어와 함께 국가어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게 되었다. 1919년의 헌법의 제14조는 핀란드어 사용 주민과 스웨덴어 사용 주민의 교육, 문화 및 사회적 요구는 동일 원칙에 의거하여 다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핀란드의 신헌법(1999년 의회 채택, 2003년 3월1일 발효) 17조에는 당국은 대등원칙 위에 국가의 핀란드어 사용 주민과 스웨덴어 사용 주민의 문화적 그리고 사회 활동적 요구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핀란드안의 스웨덴어 사용자들은 스스로를 법률적 측면에서 소수자로 여기는 면이 있다. 이런 면은 핀란드 헌법이 스웨덴어를 핀란드어와 동등하게 공식 위상을 보장한다는 사실에 기인하고 있다. 핀란드어가 지닌 공식적 위상이란 면에서 스웨덴어 사용 핀란드인들은 실제로는 소수자가 아니라 언어적 소수자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핀란드 내의 스웨덴어 사용 공동체의 규모는 전체 인구와 대비하여 계속 축소되고 있는데 20세기 중후반까지는 사용자 수의 감소가 원인이었지만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러시아어를 비롯한 기타 언어 사용자의 이민이 늘어난 것에 기인한다.

그 수가 급속도로 증가한 집단을 출신 국가 별로 보면 소말리아, 전 유고슬라비아, 이라크, 이란, 터키, 아프가니스탄 등 국제 난민에 해당하는 경우와 에스토니아, 중국, 태국, 베트남, 인도 등 이주민에 해당하는 경우로 나뉜다.

스웨덴어 사용 핀란드인들은 주로 남부, 남서부와 서부 해안 및 올란드 섬들에 거

주하고 있다.

## 2. 공용어로서의 지위

핀란드어와 스웨덴어는 법에 의해 규정된 핀란드의 국가 언어이며, 대등원칙에 근거하여 다루어지고 있다. 국회, 정부, 법원, 지방자치단체에서 두 언어는 공식 의사소통 언어로 사용되는 등 스웨덴어의 지위는 광범위하게 보호받고 있다.

언어조례에 의해 당국은 단일언어와 이중언어 당국으로 구별되고, 지방자치단체는 핀란드어 단일언어 지자체, 스웨덴어 단일언어 지자체, 핀란드어가 다수어인 이중언어 지자체, 스웨덴어가 다수어인 이중언어 지자체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모든 시민은 당국과의 접촉 시에 자기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이중언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당국은 핀란드어와 스웨덴어 모두로 서비스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단일 언어 정부 당국도 의뢰자 개인과 관련된 업무에 있어서는 다른 언어로 서비스하게 되어 있다.

이중언어 사용 단체로 규정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당국은 공식적 이중언어 원칙에 따라 공공 안내는 두 언어로 제공할 수 있어야만 한다.

교회나 군대에서 소수어인 스웨덴 사용권리가 보장되고 있어 언어적 배경에 따라 교구가 구분되며 군대에 징집된 경우에 가능한 한 두 언어 중 같은 모국어를 사용하는 단위부대에 배치되나, 명령만은 항상 핀란드어로 내려진다.

## IV. 핀란드의 이중언어 교육정책

### 1. 핀란드의 교육체제

가. 교육의 기본 이념 - “사람 간의 평등, 지역 간의 균형”

핀란드가 전통적으로 추구하는 교육 이데올로기는 '평등 교육의 실현'이다. 다각적인 지원과 학습 환경의 개선을 통하여 교육 기회에서의 평등뿐 아니라 성취 결과에서의 평등을 실현하고자 한다. 성취수준의 평준화 노력은 학습부진아 및 이민자 교육에서도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핀란드에서 특수 교육은 단순히 정신적·신체적 장애를 가진 학생을 위한 교육을 넘어서 특수한 교육적 필요가 있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학습 부진아 교육,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 교육을 포함한다. 또한 부진이 진행되기 전에 학습 장애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처방하여 학생이 뒤처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OECD 2003년 통계에 따르면, 핀란드에서 부진아 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는 학생은 21%에 달하여 OECD 국가들의 평균 6%와 비교할 때 성취수준 평준화를 위한 핀란드의 국가적 지원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연히 보여준다.

개인차를 고려한 교육 서비스의 제공으로 학습자 차이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학교 간의 격차 또는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함과 동시에 교육의 시간·비용 대비 효율성을 극대



화하고자 노력한다. 핀란드에서 교육 예산 배분의 원칙은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더 많은 예산이 배정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지역의 실업률, 심지어는 지역 경찰에 접수된 범죄 신고 및 구조요청 건수까지도 각 지역의 단위학교에 지원할 예산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

#### 나. 핀란드 교육의 특징

첫째, 핀란드는 OECD 국가 중 가장 지방분권화된 공교육제도를 갖고 있다. 학교제도, 학위, 평가, 자격, 학생 수에 따라 책정되는 교육 재정, 교사 자격, 국가수준 핵심 교육과정 등 교육에 관한 기본 제도와 원칙을 국가 차원에서 결정한다. 한편, 학교소유권, 학교간 네트워크 구축, 학급 규모 결정, 교원 및 교사 채용, 예산 집행, 지역 및 학교 단위 교육과정과 시간 편제에 대한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다. 국가 및 지역 수준의 기본교육 틀 안에서 단위학교는 종합학교 저학년의 경우 10%, 고학년은 20%, 고등학교는 25% 정도의 교육과정 상의 자율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단위학교는 자치권을 가지고 지역 공동체와의 밀접한 상호작용 및 교육적 협력을 달성하여 교육적 효과를 최대화하고 있으며 교사들은 자신의 전문성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갖추고 있다.

둘째, 학생복지서비스의 강화를 통한 맞춤형 개별화 교육은 핀란드 교육의 우수한 배경이 되고 있다.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학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장애학생, 부진아 학생, 이민자 학생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산림 지역이 많은 핀란드의 지리적 특성상 도시와 기타 지역 간의 교육 여건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핀란드 정부는 교육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학생들에게 매달 학업 보조금을 지급하여 교육적, 문화적 환경의 결핍을 최소화 하고자 노력한다.

언어 교육을 가장 중시하는 핀란드에서는 읽기 쓰기 능력의 부진은 향후 학습능력의 부진으로 이어질 것을 염려하여 기초학습부진으로 판별 받은 학생을 위한 개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학습부진학생을 위한 별도의 보조교사를 채용하고 개인 시간표에 따라 1대1 개인교습 및 개별학습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학습치료와 상담치료를 병행하고 빠른 기간 안에 일반학생 수준으로 향상시킨다. 사회적으로도 학습부진에 대하여 부끄러워하거나 공개되는 것을 꺼리지 않으며 오히려 유용한 기회로 삼고 자기 계발에 힘쓴다.

셋째, 핀란드는 교육체제상의 유연성과 탄력적인 운영을 자랑한다. 실례로 학교급 간의 경계를 개방하여 종합학교 졸업자도 합당한 실무 능력을 갖추게 되면 폴리테크닉(전문기술대학)에 입학이 가능하다. 또한 정규 학교 이외의 다양한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증진하고 학교 밖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취득한 학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로써 학업 기간의 단축 및 학습의 중복을 피할 수 있다.

#### 다.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

핀란드 교육의 경쟁력은 ‘훌륭한 교사’에게서 비롯된다.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교사는 양질의 핀란드 교육을 제공하는 선행조건이다. 전통적으로 교사와 교직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많은 자원을 교사 양성과 재교육에 투자하고 있다. 석사 학위는 교직 입문의 필수 사항이며 이를 위하여 대학에서 평균 5.5년간의 교사 양성교육을 받고 교사로서뿐 아니라 연구자(A teacher as a researcher)로서의 전문성을 갖추게 된다.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과서 선택, 교수법, 학생 평가 등에서 교사들은 상당한 자율권과 재량권을 갖고 있으며 학교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한다.

**\* 핀란드 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업**

직업	교사	심리학자	예술가	건축가	의사	간호사	목사	기타
비율	26 %	18%	18%	15%	10%	9%	2%	2%

**라. 교육 재정**

대부분의 교육기관은 주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 설립·운영된다. 주 정부 또는 지방자치체의 교육 교부금은 철저하게 학생 수 및 수업시간 수에 따라 산출되고 차등 지급된다. 교육기관 운영비의 57%가 주정부 교부금이며, 핀란드의 모든 대학은 국립대학이다.

1969년 이래로 학생 재정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교육기관에 적을 두고 있는 전일제 학생 또는 합당한 사유로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 주택보조금, 정부가 보증하는 대출금 등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대학 및 고등교육기관의 학생들에게는 식사 보조금, 저소득 채무자의 대출금 이자, 의무교육 대상자에게는 무료 급식, 고등학생을 위한 여행/귀향 여비와 통학 보조금, 취약지역 학생들의 교육·문화 활동 보조금 등을 지급한다.

**2. 핀란드의 교육제도**

**가. 초·중학교(종합학교)의 교육**

종합학교에서는 7세부터 16세에 이르는 전체 아이들에게 무상 의무교육으로 9년간의 기초교육을 실시한다. 어느 정도 제약 하에 아이들은 자신의 선호에 따라 종합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 질병 또는 다른 이유로 학교를 다니지 못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형태의 교육을 준비해 주어야 한다.

핀란드 국민은 9년간의 기본교육에 1년의 취학전 교육 또는 자발적인 추가교육 1년을 더하여 시작 후 10년이 되는 해에 의무교육을 종료한다. 의무 교육은 반드시 학교에 다녀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형태를 통해서 동등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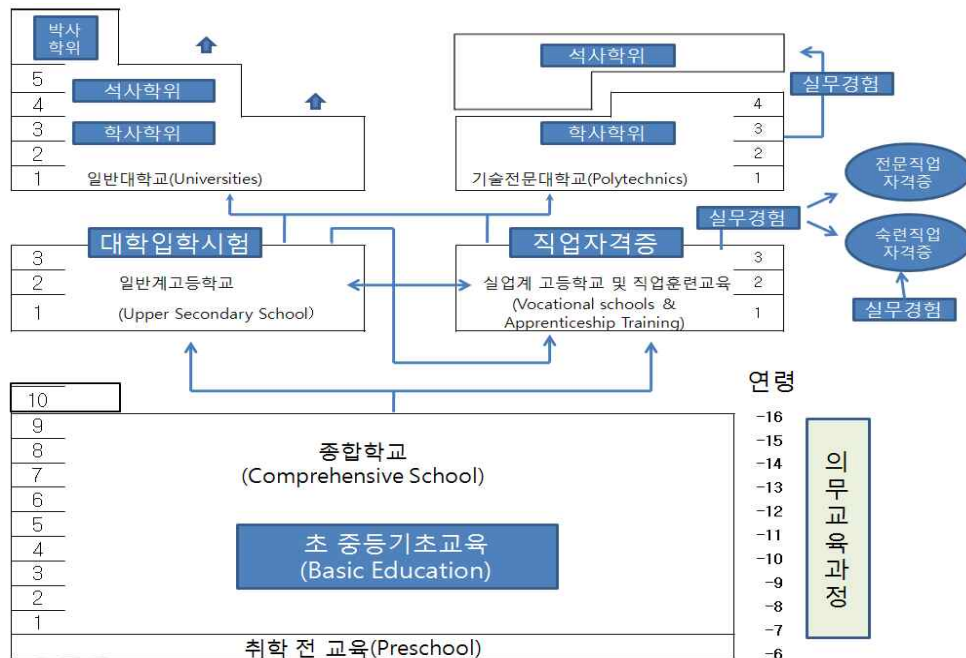
학습 그룹은 학년에 따라 나뉜다. 처음 6년간은 한 교사가 전 과목 또는 대부분의 과목을 가르치게 된다. 다음 3년간은 과목 담당 교사가 교과별로 가르치게 된다. 필수 기

본 교육과정은 국어와 문학(핀란드어 또는 스웨덴어), 제2공용어, 외국어, 환경, 보건, 종교 또는 윤리, 역사, 사회,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리, 체육, 음악, 미술, 공예와 가정으로 구성된다. 각 과목별 국가 수준의 목표와 시간 배당은 정부에서 결정하며 교육부가 목표와 핵심 내용을 국가 수준 핵심교육과정을 통해 규정한다. 이에 기초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단위 교육과정을 마련한다.

학년은 8월 1일에 시작하여 7월 31일에 마치게 되며 수업일수는 연간 190일이다. 초·중학교에서의 학업량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 이상을 휴식하고 여가와 취미생활을 즐기며 여행 및 과제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어지도록 하고 있다. 수업, 교과서, 학습 자료, 식사 뿐 아니라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위한 통역, 개인교사 채용, 보조 서비스 등이 모두 무상으로 제공된다.

언어교육을 중시하는 핀란드 기본교육에서는 모국어(핀란드어, 스웨덴어, 새미어)를 사용하는 학습권을 보장하고 있다. 더불어 읽기 및 쓰기 능력의 학습부진학생을 조기에 판별하고 개별식 맞춤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습 결손을 최소화한다. 이로써 학습하는 능력을 계발하고 향후 상급학년 또는 평생학습사회에서 능동적인 학습자의 역할을 갖추도록 한다.

전국적으로 종합학교는 연결망을 가지고 있다. 기본교육을 제공하는 종합학교 간에는 경쟁이 없다. 그 이후에는 전국에 걸쳐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려는 학교 간 경쟁과 우수 학교에 입학하려는 학생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종합학교 이후의 교육은 일반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진다.



#### 나.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육

일반계 고등학교는 16-19세 학생들에게 3년(최저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가능)간의 일반교육을 제공한다. 종합학교 성적을 근거로 하는 전국연합응시제도를 통해 종합학교에서 기본교육을 마친 학생들을 신입생으로 선발한다. 2003년 현재 종합학교 졸업생의 약

92%가 곧바로 일반계 또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하였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목표는 학생들에게 앞으로의 학문과 직업, 취미, 전인적 인성 발달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건전하고 균형 잡힌 개인 또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1년은 5~6학기로 나누어지고 각 학기는 시험기간 10일을 포함하여 7~8주에 해당된다. 학생들은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기 4주전에 수강 신청을 하며 각자의 진로와 필요에 따라 특정과목으로 구성된 개인별 시간표를 갖게 된다. 학생의 진급과 교수 집단의 구성은 학생의 과정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

이에 따라, 학년 구분은 없어지고 모든 일반계 고등학교는 무학년 체제로 운영된다. 학교장의 72%, 학생의 82%가 자유로운 선택권과 유연한 학습 프로그램이라는 관점에서 무학년 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상담, 추수 지도, 반편성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학생들은 시간표 짜기, 교육과정 구성, 시험주간에 대한 문제점 등을 무학년제의 개선 사항으로 지적하였다. 더불어 1994년 무학년제 도입 이후 학업기간이 연장되고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증가되는 추세이다. 특히 도시지역 대규모 학교에서 이러한 경향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무학년제는 교육과정의 유연성과 타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토대로 하여 운영된다.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여름학교, 개방대학, 다른 고등학교, 성인교육센터, 기술직업대학, 외국에서의 학업 등으로 취득한 학점도 인정하고 있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최소 75개의 과목 - 각 과목은 약 38시간의 수업 -을 이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필수과목, 심화과목, 응용과목 등이 있다. 모든 학생들은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학교는 필수과목과 연계되는 다양한 심화과목을 개설하여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응용과목은 여러 과목의 공통요소를 포함하는 통합과목, 방법론적인 실습과목, 기타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직업 교육과목 등을 지칭한다.

국가 차원의 목표 및 각 과목에 대한 시간 배당, 과목군 등은 정부가 결정한다. 교육부는 다양한 과목과 과목군의 목표와 핵심 내용을 국가수준 핵심교육과정에서 결정한다. 또한 가정과 학교의 협력에 관한 주요 원칙, 학생 복지에 관한 주요 원칙과 목표도 규정한다. 이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교육 제공자들은 지역단위 교육과정을 이끌어낸다. 각 학교는 국가 차원의 핵심 교육과정을 따라야 하지만 최근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학교마다 나름의 독특한 특수성을 강조하거나, 일부 자율학교는 특화된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어서 예술 또는 특정 분야를 강조하기도 한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마지막에 학생들은 고등교육 수학능력의 기준이 되는 대학 입학시험을 국가 주관으로 치르게 된다. 대학입학시험은 4개의 필수과목 및 한 과목 이상의 선택과목으로 이루어진다. 응시생들은 한 번에 모든 시험을 끝낼 수도 있고, 부분별로 나누어 치르는 경우, 최장 3회에 걸쳐 시험을 연속적으로 치를 수도 있는데 이 경우 18개월이 더 걸리게 된다. 필수 과목은 모국어(핀란드어 또는 스웨덴어, 학교에서 교육받은 언어에 따라 다름), 제2공용어, 외국어, 수학 또는 선택과목의 4과목을 치르게 된다. 선택과목에는 종교와 윤리, 심리학과 철학, 역사와 국민 윤리, 물리, 화학, 생물과 지리 중 하나 이상의 과목이 포함된다. 수학 시험은 제2공용어와 외국어로 된 두 가지 종류가 있는

데, 필수과목 중 하나로 치를 경우, 둘 중 보다 어려운 수학 과목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

교육제공자(주로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학교 감사 또는 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대하여 표집평가를 실시하는데 이는 학교 서열화의 목적은 없고 오직 교육정책 개발을 위한 데이터로 활용한다.

#### 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

핀란드의 직업교육은 상당 부분 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에서 충실하게 이루어진다. 교육과정은 직업교육과 실제 직업세계와의 관련성을 높이기 위해 입학생의 10% 정도까지 견습생 비율을 늘리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실업계 고등학교는 학교 수업과 현장 실습을 통해 75개의 직업관련 기술을 가르친다. 학업 프로그램은 3년 과정이며 120학점을 이수하면 마치게 된다, 이중 직업관련 90학점(실습 20학점을 포함하여), 자유선택 10학점, 언어·외국어·과학 등의 핵심교과가 20학점에 해당한다. 종합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선발하여 기본 직업관련 자격을 얻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2006년부터는 직업기술능력시험으로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외에도 현장실습 도제제도를 이수하는 것으로도 졸업 학력을 인정받고 있다.

2004년에 기획된 핀란드 교육발전계획안에 따르면 직업교육의 내실화와 직업실무와의 관련성을 증진시켜 직업교육의 사회적 인식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실무 능력 위주의 자격증 제도로의 개선과 자격증 취득 과정의 다변화를 장기발전계획안에 포함시켰다. 또한 일반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공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일반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과목을 동시 수강하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은 폴리테크닉(기술전문대학)뿐 아니라 일반 대학에도 진학할 수 있다.

#### 라. 핀란드의 교육과정

다음은 핀란드 초·중등교육과정에 규정된 범교과 주제이다.

- 개인으로서의 성장
- 문화적 자아와 세계시민의식
- 미디어 능력과 커뮤니케이션
- 능동적인 시민정신과 기업가 정신
- 환경, 복지,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책임
- 안전과 교통
- 기술과 개인

핀란드 국가수준 교육과정 문서에 제시된 초·중학교 필수교과 및 시간 배당은 다음과 같다.

#### < 초·중학교 주당 최소수업시수 >

과목	1	2	3	4	5	6	7	8	9	계	
국어·국문학	14		14			14				42	
A-언어				8			8			16	
B-언어							6			6	
수학	6		12			14				32	
환경	환경과 자연 9										31
생물과지리					3		7				
물리와 화학					2		7				
보건							3				
종교/윤리	6				5				11		
역사와 사회					3		7			10	
음악	4시간이상			총시수		3시간이상			총시수		56 (26+30)
미술	4시간이상			합		4시간이상			합		
공예,기술,직물	4시간이상			26		7시간이상			30		
체육	8시간이상					10시간이상					
가정							3			3	
진학과 진로지도							2			2	
선택과목	13									13	
선택A언어						(6)		(6)			(12)
학년별 최소시수	19	19	23	23	24	24	30	30	30	222	

전반적으로 핀란드의 교육에서 초·중등 교육과정은 학습의 기본능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 특히 초등교육은 부진아 지도,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배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중등과정은 진로탐색이 강화되어 있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부진아를 위한 보충수업은 독립된 한 항목으로 그에 대한 사항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교육과정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보충수업의 주도권이 교사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어 학생이 마땅히 받아야 할 교육과정의 일부로 규정해 놓았다. 부진아 지도는 예방을 목표로 조기 발견 및 조기 개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진단방법을 사용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전문가 치료 및 수업을 병행하여 맞춤형 개별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통계에 의하면 과목별로 일시적인 보충수업을 받는 학생이 22% 정도에 달할 정도로 보충수업에 대한 지원이 철저하다.

중학교 과정 역시 부진아 지도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중학교 과정은 학생들의 발달단계 상 중요한 시기이므로 가장 많은 예산자원을 배분하고 있다. 학급당 학생 수가 초등, 중등에 비해 적으며 부진아 지도 역시 다양한 방식의 특별학급, 소그룹 편성을 통해 철저히 이루어진다.

또한 진로지도가 강화되어 있는데 진로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수강해야 하며 직접 사회에서 직업생활을 체험하는 기간을 가지도록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다. 9학년의 기초의 무교육과정 후에 일부 학생들은 1년 동안 자발적인 추가 교육인 10학년에 머무를 수도 있다. 자발적인 추가교육 10학년은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졸업 등급을 올리기 위한 학습을 하는 아이들과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기 전 직업교육 기관이나 직업 현장에서

진로탐색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듯 초·중학교 교육의 철저한 부진아 지도 및 진로교육의 강화는 일반계 고등학교를 진학한 학생들이 자기 적성에 맞는 개별적인 교육과정을 스스로 짜고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가 되고 있다.

핀란드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무학년제이며, 1년이 5개의 학기로 나뉘어져 한 학기에 5-6 강좌를 수강하는 체계를 취한다. 학년과 계열 구분이 없이 학생 개개인은 자신의 학습계획에 따라 수강 계획을 세우고 이를 모아 각자의 교육과정을 만들어 가게 된다. 적은 과목을 짧은 학기에 집중적으로 이수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에서의 집중이수를 실행하고 있다. 국가가 지정한 필수과목 이외에 지역단위/학교단위에 과목 개설권을 보장함으로써 단위학교는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각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특성화가 촉진된다. 이는 또한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에 대한 고등학교 교육 내용의 대응력을 신장시키는 결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학습자의 편에서 살펴보면, 핀란드 교육과정은 심화과정이 세분화되어 있어 학생에게 실질적인 과목 선택권이 광범위하게 주어진다. 기본적으로 낙제를 많이 하지 않는 이상 적성과 진로에 맞게 넓게, 혹은 심도 있게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심화과목의 최소단위만을 지정해 놓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자신의 능력과 진로에 따라 자연스럽게 심화 학습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또한 개별 학습을 하는 것도 가능하며, 다른 교육 기관에서 받은 학점도 인정하고 있어서 단순히 수준별 수업이라는 소극적인 틀을 벗어나 교육의 개별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전반적인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 비해 총 이수단위가 현저히 낮은 것이 특징이다. 한편, 광범위한 학생 선택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필수로 지정된 과목의 수, 이수단위 수에 있어서는 모두 우리나라보다 높아 기초교육을 충실히 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으며, 특히 과학과의 경우 필수과목으로 지정된 교과목이 많고 각각의 과목에 따른 심화 과정의 수도 많아 과학교육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과목교사는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학습 목표에 맞추어 다양하게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평가는 4-10 까지 등급제 (4-낙제)이다. 낙제를 허용하는 강좌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스스로 성적관리를 하지 않으면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할 수 없다. 대신에 학생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 재시험을 볼 수 있으며 광범위한 학점 교류가 인정된다.

### 3. 핀란드의 언어교육

#### 가. 모국어 교육

핀란드에서 핀란드어와 스웨덴어는 국가 수준의 커리큘럼에서도 ‘국어(kotimainenkieli:nationallanguage)’로 명시되어 있고 국민들도 그렇게 부르고 있다. 여러 공식 문서에서도 ‘핀란드의 공용어는 핀란드어와 스웨덴어이고 어느 쪽도 평등하다.’라고 되어 있다. 2002년 시점에서 핀란드어 사용자가 국민 전체의 92.1%, 스웨덴어 사용자가 6.6%로 이 둘만으로도 거의 전체를 커버할 수 있다. 인구 비례로 따지면 압도적인 차이가 나지만 핀란드의 역사적인 상황으로 살펴볼 때 이 두 언어는 동등한 권한을 갖고 있다.

핀란드와 스웨덴어로 교육 제도가 충분히 정비되어 있지만 두 개의 학교계열은 별도의 교육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같은 학교 내에 스웨덴어로 가르치는 학급이 있어도 핀란드어로 가르치는 학교의 관할이 된다. 그 만큼 문화적인 자치가 철저하다.

과거 아이들은 두 언어 중 한쪽을 필수 외국어로 두 언어 중 한쪽을 필수외국어로 배우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2004년 국가 수준의 커리큘럼이 공포된 이후에는 스웨덴어는 외국어의 일종으로 취급되어 핀란드어 사용자가 반드시 제2외국어로 학습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하지만 실제로 핀란드어를 모국어로 하는 이들은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중학교에서 스웨덴어를 배우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스웨덴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민들로부터는 평등이 깨어졌다는 비판이 일고 있지만 커다란 반대 운동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스웨덴어는 북유럽 5개국인 서로 회합을 할 때 쓰는 언어로, 핀란드에서도 어느 정도 사용 가능하도록 교육받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러나 이 두 개의 국어와는 별도로 헌법은 소수파의 언어로서 라플란드의 유목민 언어인 사미어, 로마어, 수화, 이 세 언어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2004년의 국가 수준의 커리큘럼에서는 이들 5개 언어를 ‘모국어(31/189):mothertongue’로 지정하였다. 수화를 인정하는 점에 있어서 가히 선진국이라 할 것이다.

법적으로 지자체에서는 가능한 한 모국어를 이용해서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소수파의 언어 교육은 핀란드에서 이제 막 시작 단계이지만 유럽의 소수 언어지역 언어를 기초로 해서 독특한 정책이 전개되고 있다.

실제로 사미어 사용자는 1,700여명(0.03%)에 불과하다. 그래도 선주민의 하나로 인정되어 ‘사미 의회법’(1996년 1월 시행)에 따라서 독자의 언어와 문화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현재는 사미어에 의한 수업이 시작되고 있다고 한다.

한편 교육계는 그 밖의 언어로서 국내 소수파와 이민자(2.2%)의 언어도 커리큘럼상 모국어로 인정하고 학습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다. 이민자녀의 경우에는 1주에 최저 2시간을 학교 예산이 아닌 지자체 비용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지 않은 언어에 대해서는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의 학교에서 해당 수업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멀리서 다니는 학생들을 고려해서 소수파의 언어 교육은 늦은 시각인 오후 5시부터 시작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기초교육법」은 “학생은 자신의 수업용 언어 opetuskieli:



language of instruction 를 습득하기 위해서 모국어 mothertongue 로서 핀란드어와 스웨덴어 또는 사미어를 학습할 수 있다.”(12조 1항)“학생은 자신을 조상의 언어nativelanguage를 습득하기 위해서 모국어로서 로마어,수화 또는 기타 언어로 학습할 수 있다.”(12조 2항)라고 명시하고 있다. 단, 이와 같은 개혁은 첫발을 내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사미어로 교과를 가르치는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청의 TF팀이 설치된 것은 1998년 10월의 일이다. 그리고 이 TF팀이 제안하여 교육학부에 강좌가 신설되고 최초의 학생이 입학한 것은 1999년 여름이다. 이와 동시에 로마어로 교과를 가르치거나 혹은 이민자녀에게 교과를 가르치기 위해서 특별코스가 각각 35단위로 개설되었다. 이 같은 노력에 대한 앞으로의 성과가 실로 기대되는 바다.

#### 나. 외국어 교육

언어 학습에 있어서 또 하나의 카테고리는 외국어 vieraatkielet : foreign languages다. 외국어 교육은 중시되고 있으며 기초학교에서는 모국어를 포함하여 4개 언어를 학습하도록 되어 있다. 이민자녀의 경우는 5개 언어가 되는 셈이다.

외국어 교육은 학생들에게 외국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야 한다. 외국어 교육의 과제는 학생들이 언어 능력을 원활히 사용하고, 타문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기능 과목이자 의사소통의 수단인 외국어 습득에는 장기적이고 다각적인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운다. 학문으로서 외국어는 문화이자 기능과목이다(서울시 교육청,2007). 따라서 외국어를 학습함으로써 타문화를 이해하는 능력도 기르게 된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외국어에 배정된 시간 수가 많은 편이다. 초등학교 과정에서 제1외국어(또는 제2공용어)를 배우기 시작하며 중학교에서 제2외국어를 선택해야 하는데, 초등학교 과정에서 제3외국어를 필수과목이나 선택과목으로 배우는 경우도 있다. 이는 스웨덴어를 핀란드어와 동등한 국어로 인정하고 있는 역사적 특성, 유럽 여러 나라와 경제적·문화적 협력을 해야 하는 지역적 특수성, 또한 다양한 민족 출신 학생의 모국어 교육도 장려하고 있는 정책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시 선택 과정으로 제4외국어 (B3)를 공부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핀란드 교육은 학생에게 최대 5개 이상의 언어를 학교 교육을 통해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폭넓은 국제적 안목을 길러주고 있다.

그 중 A 언어(제1외국어)는 핵심 과목이다. 이것을 선택과목으로 시작할 수도 있다. A 언어에서 좋은 학습 습관을 형성하는 것은 이후에 배우게 되는 다른 언어 학습의 좋은 기초가 된다. 학생들은 A 언어를 학습함으로써 타문화를 이해하는 능력도 기르게 된다.

언어 교육을 3학년 이전에 시작할 때에는, 처음에는 들은 것을 이해, 반복, 적용하는 것과 말로 하는 의사소통의 연습에 초점을 둔다. 문자는 말하기 연습을 지원하

기 위해 상황에 따라 사용한다. 교육은 학생의 경험 영역 내에 있거나 이전 교육에서 다루어졌던 내용과 주제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학생들에게 문화 간 차이에 대한 기초적인 소개를 해준다. 교수·학습은 가능적이면 놀이의 성격을 띤다.

3-6학년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어 교육의 과제는 학생들이 주변에서 직접 부딪히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의사소통을 익숙하게 하는 것으로, 처음에는 대부분 말로, 그리고 점차 글로 의사소통의 양을 늘려가도록 하고 있다. 학생들은 언어와 문화는 서로 다를지라도 가치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좋은 언어 학습 습관을 계발해야 한다. 학습 목표를 살펴보면 목표 언어의 문화를 알게 되고, 그 문화와 핀란드 문화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한 기초적인 안내를 받는다. 이를 통해 자기 자신의 문화와 목표 언어 사용 지역의 문화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배우게 된다. 여기서 가능하다면 핀란드 내에서 목표 언어 사용자들이 형성한 문화도 포함한다. 따라서 목표 언어의 문화에 대해 알게 되고 자신의 문화적 배경에 비추어 그것을 이해하게 되고 문화적으로 형성된 가치를 인식하게 된다.

7-9학년에서는 자신의 문화와 목표 언어문화 간의 관계, 유사점, 차이점을 알게 되고 언어 학습과 습득 면에서 효과적인 접근법을 규칙적으로 사용하고, 지속적인 의사소통 연습이 언어습의 필수 요소임을 깨닫는다(서울시 교육청, 2007).

7-9학년에서의 선택언어로서의 외국어 교육은 가장 일상적인 상황에서 말로 의사소통하는 것에 강조를 두어야 하며, 고등학교 교육에서 받게 될 광범위한 외국어 교육을 준비하는 역할을 한다. 이 핵심 교육과정은 연간 4주의 수업으로 구성된다.

#### 다. 핀란드의 몰입교육(언어 집중 훈련 프로그램)

처음 핀란드가 몰입식교육을 시작하게 된 것은 1987년 Vassa/Vasa 라는 지역에서 캐나다 초기 전체 몰입 프로그램을 수용한 몰입프로그램이 나타나게 되었다. 처음 몰입식 교육이 시작되었을 때 부모들과 관리자들은 제2언어의 확장이 모국어의 성장과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방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결과는 학생들의 모국어 습득을 방해하지 않았다. 유치원부터 몰입식 교육이 실시되었으며 몰입교육의 교사들은 철저한 핀란드어와 스웨덴어 두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이중언어 사용자였다. 이처럼 다년간의 조사를 통한 결과를 바탕으로 몰입프로그램의 효과를 말해줄 근거가 되었으며 훗날의 몰입프로그램 구상의 좋은 선례가 되었다.

1990년 후반에는 언어집중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탁아시설이 늘어났다. 4세에서 6세의 핀란드어 단일 사용 가정의 어린 아이들이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스웨덴어를 집중 훈련 받게 된다. 이 시기의 연령에 이미 어린이의 모국어(핀란드어) 능력과 정체성이 강해지고 새로운 언어의 학습 능력이 우수하다는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해당 아이들이 기능적으로 스웨덴어와 핀란드어 이중언어인이 되게 하는데 있다. 어린이의 부모는 어린이가 수년간 언어 집중 훈련을 받게 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하며, 자기 아이의 모국어 발달을 돌보아야만 한다. 해당 교육기관의 근무자들은 핀란드어를 이해하고 말할 수 있지만 스웨덴어

만을 사용하며, 어린이들은 두 언어 중 어떤 언어를 사용해도 된다. 왜냐 하면 이 프로그램에서 언어는 표현의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어린이들은 점차적으로 탁아시설에서 집중 훈련 받고 있는 언어를 더 많이 사용하기 시작한다. 언어 집중 훈련을 받은 어린이들은 탁아시설 이후에는 초등학교에서 계속해서 집중 훈련을 받는다. 초등학교 1학년 때는 교육의 주요 부분은 스웨덴어이지만 일반적으로 2학년부터 여러 과목들을 핀란드어로 배우기 시작하여 학년이 올라갈수록 핀란드어 사용은 더 늘어난다. 언어 집중 훈련이 끝날 때쯤이면 학습의 반 정도는 스웨덴어, 나머지는 핀란드어와 다른 언어들로 이루어진다. 다른 외국어 학습은 1학년 때부터 시작한다. 또한 이러한 몰입프로그램과 더불어 영어몰입프로그램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주립유치원과 학교에서도 몰입교육이 실시되었지만 사립 몰입 유치원도 나타났다. 몰입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부모들의 사회적 지위와 교육수준은 핀란드의 평균과 비슷하다. 그러나 사실은 Vassa 지역에서 몰입교육을 이유로 이 지역으로 전입하는 경향이 있어 학부모의 수준은 더 높다. 요즘은 고급 사립 유치원 학부모들의 사회적 지위와 교육수준이 매우 높다.

거의 대부분의 사례에서 보면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몰입교육에 있어서 든든한 후원자이자 지지자인 경우가 많다. 학부모들은 교사들의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재정적 도움을 주며 정신적인 지원을 한다. 실제적인 도움이란 교사가 비언어적인 교수자료가 필요할 때 그 준비를 돕는 것이며, 재정적인 도움이란 교수 자료 또는 몰입교육행사에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고, 정신적인 지원이란 교사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것을 말한다. 그들은 학부모조직을 만들기도 하며 주변의 다른 몰입교육 학교 학생들과의 교류를 주선하고 친선모임을 만드는 등 학급 밖에서도 충분히 스웨덴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학교 행정가들은 여름방학기간이나 휴일에 기존 교육과정 외의 활동들을 주선하여 ‘살아있는’ 언어로 배우게 함에 그 목적이 있다. 교사들은 더욱 효과적인 몰입교육을 위해 캐나다와 카탈로니아(스페인 북동부지방)의 몰입교사들과 수업방법과 정보들을 공유한다. 그리하여 1991년부터 University of Vassa에 지속교육센터를 세워 몰입교사들의 지속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핀란드에서 처음 실시되었던 몰입교육은 그들의 언어적인 발달에서 뿐만이 아니라 학습성취도에 있어서도 성공적이었으며, 이 몰입교육 실시 이후로 많은 지역에서 몰입교육이 확장, 실시되게 되었다.

이러한 집중언어 훈련은 자연스럽고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에서 국가의 다른 공용어를 사용하게 하여 언어를 습득하게 하는 교육방법이란 면에서 외국어 교육 방법으로 참고할 만하다고 사료된다.

#### 4. 핀란드의 소수민족 문제

“핀란드에는 이민자의 비율이 매우 낮아 인구의 1%를 겨우 넘겼다.”(PISA

2000,OECD,p.48)라고 OECD 출판물에 소개된 것이 2001년의 일이다.

하지만 사태는 급변하여 2004/2005년 통계에 의하면 학령기 아이들로 따졌을 때 인구의 2.2%에 이르렀다.이 같은 현상은 헬싱키 시와 신흥 산업도시인 에스포 시에서 두드러지는데,헬싱키 시는 2.6%,에스포 시는 5~6%를 웃돈다. OECD 공식 문서에는,‘핀란드의 기초교육은 사회적 민족적으로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학생을 포함해서 성적을 공통 레벨까지 가르치게 되어 있다. 교사의 양성 목적은 이 목표가 달성되도록 교사에게 이해와 실천적 기능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다양성을 키우는 점에 있어서 한층 더 힘든 일을 떠안고 있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다른 국가의 아이디어를 조사해보고 싶다.’라고 되어 있다.

스웨덴처럼 이민자의 인구가 13.6%를 점하는 국가와 달리 핀란드의 마이너리티 대책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그렇지만 일본과 비교하면 대단히 앞서 있다(후쿠타 세이지,2008).

소수파는 모든 사회생활에서 기본적으로 ‘평등법’(2004년)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이민자는 평등하게 대우받고 있으며 2개 국어 사용 bilingual과 다문화 습득을 보장받고 있다. 모국어와 함께 공용어로서 핀란드어 또는 스웨덴어를 선택하게 해서 2개 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게 하는 것이 법률상의 기본 원칙이다. 수업할 때 핀란드어, 스웨덴어, 기타 외국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공식 보고가 있다.

그런데 원칙은 이러하지만 현실은 좀 다르다. 모국어로 모든 교육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금지나 제한은 없지만 모든 언어가 평등하게 보장받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이민자 등 소수파는 자신의 민족어를 유지하면서 모국어를 핀란드어(지역에 따라서는 스웨덴어)로 바꾸고 있다. 핀란드에 있는 비핀란드계 사람들의 역량과 문화적 노하우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보고가 있다. 핀란드에서 고등교육기관 학위를 완료하는 이주민의 비중은 낮은 수준이며, 이주민의 실업률은 기존 핀란드인들의 두 배 이상이라는 보고도 있다(한국교육개발원,2010). 핀란드어 또는 스웨덴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현재 주2시간의 모국어 학습이 실시되고 있다. 주 2시간 이상의 핀란드어 학습(제2언어로서의 핀란드어 학습)에 이어 가능한 범위에서 특별 지원 교육, 이슬람 또는 그리스정교의 학습 또는 윤리학습을 받을 수 있다.

공적인 보고에 의하면, 핀란드에 입국한 이민자녀 중 의무 교육 연령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종합제학교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6개월간의 ‘준비교육 preparatory instruction’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같은 문화권의 아이들을 모아서 소그룹을 형성하고 그 곳에서 아이들이 자신의 모국어와 문화적 정체성을 발전시켜나간다. 그 위에 핀란드 문화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2개의 문화와 2개의 언어로 교육받는다.이처럼 양쪽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기능적 2개 국어 사용 functionalbilingualism’이라는 말이 사용되었지만, 지금은 핀란드에 있어서 마이너리티 교육의 기본 이념이 되었다.

헬싱키 시의 경우,초등학교 31민족(핀란드에서는 그룹으로 불리고 있다.), 중학교



올리지 못하고 있다. 어떠한 가정에서 태어났느냐가 크게 좌우하고 있고 그것이 학교 성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일본교직원조합회,2007)

“실망을 금할 수 없다.”라는 표현에는 그 나라의 사상성과 감정이 깃들여 있었다. 특히 영국의 경우를 지적하면서,“전체적으로 학업 능력이 뛰어나고 평균 성적도 높지만 우선적으로 어느 가정에 태어났는가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핀란드와의 비교 논의가 한창이라고 전하였다.

“핀란드는 전체적으로 성적이 좋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사회적 배경이 학업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적다는 것이다. 이는 바로 모든 학생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현 교육 제도가 성공하고 있다는 증거다.”라고 현 상황을 분석하였다.“때문에 영국에서는 사회적으로 특권 있는 배경에서 태어나면 핀란드 학생과 마찬가지로 성적이 좋겠지만 이민가족이나 한 부모 가정, 빈민 가정 등과 같은, 혜택을 못 받는 환경에서 태어난 경우에는 성적이 훨씬 나쁠 것이 자명하다. 이는 프랑스와 독일, 미국도 크게 다를 것이 없다.”라는 분석을 덧붙였다.

핀란드와 같은 북유럽 복지국가는 국민 세금 부담이 큰 만큼 사회 구석구석까지 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다. 교육과 사회복지, 보건의로 분야에는 빈부에 상관없이 공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완료되어 있다.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제도의 보급도 확산되어 있어서 야간이나 여름 학기를 이용하여 누구라도 적은 비용으로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흥미가 있는 분야가 있으면 아무 망설임 없이 쉽게 도전할 수 있는 것이다.

1993년에는 교육을 비롯하여 지방 분권화가 진행되면서 재원 등 대부분이 지자체의 결정권으로 이양되고 국가의 지도 감독권은 원칙적으로 폐지되었다. 지자체의 활동은 갈수록 왕성해져서 인구 530만 명의 국가에 지자체 직원이 42만 명에 이른다. 예를 들면 전체 노동인구에서 공무원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핀란드가 28%(1997년),일본은 7%(1996년)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핀란드는 사회복지, 보건, 교육 분야의 직원이 전체의 82%에 이르기 때문에 사회복지가 얼마나 중시되고 있는지 또한 재원이 얼마나 투입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다(후쿠타 세이지,2008).

이러한 복지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국민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세금은 수입의 30~60%에 다다르며 평등하고 풍부한 재원을 자랑한다. 세금이 많은 만큼 부부가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가계 유지가 힘들기 때문에 세금 감면을 희망하거나 공적 부문의 삭감을 주장하는 부호들도 있다. 하지만 이들 중에는 “내가 오늘날 이렇게 성공하게 된 것은 무상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 덕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었으니 세금으로 돌려주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야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도 나처럼 무상교육으로 재능을 펼칠 수 있지 않겠는가?”하는 이들도 있다고 한다(야마다 마치고,2005).

평등한 교육이 실행되어야 가정 형편과 관계없이 실력 있는 아이들을 키워낼 수 있다. 이는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룬 일본이 일찍이 경험한 일이며 오늘날 핀란드

역시 같은 경험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유럽의 정보 산업국들은 한결같이 복지정책 실현이 오늘날과 같은 성공을 이루어 냈다고 생각하고 있다.

핀란드의 교육적 특색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평등한 교육’이지만 그 배경에는 사회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감춰져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실제로 사회 전체가 이러한 평등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많이 애쓰고 있다.

개인의 능력 차이는 물론 인정한다. 그러나 아이의 성장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경제적 배경의 격차는 어떻게 해서든 없애려고 한다. 그리고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회가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사회가 바로 핀란드다.

## V. 결론

핀란드는 최근 수년간 국가 경쟁력 지수와 국가 선명도 지수에 대한 국제 공인기관의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언어교육을 비롯한 교육 제도의 수월성에 기인한다고 보인다. 우리나라의 학부모가 사교육비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현실이지만 핀란드는 사교육 없이 오직 공교육만으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다. 인구가 530만 명밖에 안되는 핀란드는 ‘사람이 자산’이라는 국정 철학 아래 교육에 역량을 집중시켰다. 핀란드 교육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 받는 이유는 최고 수준의 교육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이중언어 국가라 할 수 있는 핀란드의 언어교육 정책은 핀란드의 문화적·역사적·사회적·경제적으로 다문화적인 요소를 많이 띠고 있다. 그리고 학교 교육에서 다문화적인 요소를 교육하고 문화적인 평등, 교육적인 기회 평등을 중요시 하는 풍토가 자리 잡은 곳이기도 하다. 그런 면에서 모국어를 인정해 주고 미숙할 경우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모국어 습득과 함께 핀란드어나 스웨덴어를 학습하면서 다중언어 교육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자아 정체감 형성과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지원은 사회적 합의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사회에서 나올 수 있으리라 본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다문화사회로 접어들었지만 아직까지 한국어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어 교육도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서 주로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어 교육도 중요하지만 모국어 습득기인 5세 미만의 아동이 다문화인 중 1%를 넘어섰고, 6세 이상 10세 미만의 아동도 0.7%를 넘어선 상황에서 모국어 교육에 눈을 돌려서 결혼이민자의 의사소통 및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언어적 능력 신장을 도모해야 한다. 우리나라 몇몇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이중언어 수업도 아직까지는 한국어 교육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국제 이해 교육

을 간헐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핀란드의 교육 기회 평등이라는 이념 아래 행하여지고 있는 언어 정책을 바탕으로 한국내의 다문화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중언어 교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모색해 보았다.

첫째, 다문화 가정 내에서의 모국어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시킨다. 대부분 결혼이주민이 여성이므로 자녀들의 어머니들의 적극적 지원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가족구성원의 협력이 필수여야 하는데 한국어 위주의 교육만을 강조한 현재의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시급한 문제이다. 그들이 갖고 있는 모국어가 또 하나의 훌륭한 언어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깨닫고 사회적 배려를 아끼지 않는 정책이 요구된다.

둘째, 이중언어 교육이 가능한 전문적인 교사 양성이다. 실제로 전문적인 이중언어 교사는 저조하다. 좀 더 효율적인 수업이 되려면 두 언어가 모두 능통한 교사가 필요한데 시범학교나 특별학급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투입될 교사도 부족한 실정이다. 게다가 아직까지는 영어과가 대부분인 상황이다. 따라서 교사 양성기관인 교대와 사범대학에서 국가별 이중언어 교사 양성을 위한 언어교육을 강화시켜야 한다.

셋째, 교육에 대한 예산 확대이다. 핀란드는 복지의 일환으로 교육부분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교육열은 한국도 못지않으나 교육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교사수급문제를 해결하거나 특별수업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필수적인 예산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한다.

현재 국내에는 다문화학생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지만 우리나라의 외국어 교육은 영어권에 집중되어있는 상황이며 사회적 합의나 국가 예산 면에서도 다양한 이중언어 교육이 단시간 내에 실시될 수 있기는 힘들 것이라 보인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다방면에서 차이점은 있지만 다문화적 요소가 많은 핀란드의 성공한 이중언어 교육 정책을 참고로 한다면 다문화사회로 진행하고 있는 한국의 다문화학생들의 모국어 교육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 또한 일반학생들로 대상을 확대시킬 몰입교육의 방법도 모색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 참고 문헌



- 김성화 (2008). 다문화가정 지원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가야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혜 (2011), 제2외국어과 공교육정책, 경기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지윤 (2007), 이중언어 환경 아동의 언어연령과 평균형태소길이의 특성,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제8권3호, 445-463
- 서울특별시교육청 (2007), 초·중학교/고등학교 국가수준 핵심 교육과정 교육선진국 핀란드를 가다.
- 서종남 (2010), 결혼이민자 가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연구, 시민교육연구, 제42권 1호, 103-126
- 송영복 (2010), 초등 다문화 학습자 대상 이중언어 교육 사례 연구, 이중언어학 제43호, 247-275
- 송향근 (2005), 핀란드의 이중언어 제도와 이중언어 교육, 스칸디나비아연구,제6호
- 이승은 (2007), 다문화가정의 문화이해를 위한 문학활동 실행연구 : 필리핀 모자를 대상으로, 「어린이문학교육연구」, 제8권 2호, 129-163
- 이진선 (2010),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 실행연구,세종대학교대학원 석사논문
- 임혜현 (2007), 몰입식 외국어교육의 이론과 한국초등영어교육 적용방안,총신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정수정 (2010), 다문화인을 위한 핀란드와 우리나라의 이중언어 교육정책에 관한 비교 연구, 경기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한국교육개발원 (2009), 다문화가족 역량개발을 위한 통합적 교육지원방안 모색, 연구보고 RR 2009-12-02